허선무 목사는
대전신학교와 개혁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전동심교회를 개척하여 20년째 섬기고 있다.

미국 텍사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로데오나 야생마 길들이기 쇼를 관람해 볼 것을 추천받는다. 이 쇼는 힘의 상징[馬力]이라고 할 수 있는 말과의 기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말을 이해하는 지식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스포츠이다. 제자훈련 목회도 어찌 보면 이 야생마 길들이기와 닮아 있는 듯하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목회(牧會)라는 용어에서 칠 '목(牧)'자는 말이나 소를 기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니 오히려 적당한 비유라고 할 것이다.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 훈련자가 숙련되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뒤따르듯, 목회자의 훈련되지 않은 열정 또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호 〈디사이플〉이 찾은 대전동심교회(이하 동심교회)는 훈련되지 않은 열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현장이다. 동시에 열정 위에 훈련이 더해졌을 때, 평신도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견고한 원동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모래성을 쌓다

동심교회의 개척 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기도'와 '전도'라는 세 단어가 필요하다. 동심교회를 개척한 허선무 목사(당시 전도사)는 불교 가문에서 자라나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허리 병이 낫게 된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거듭남 없이 교회와 세상에 한발씩 걸친 채 반쪽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서울과 대전을 출퇴근하던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경험했다. 이후 성경과 찬송가를 사서 당시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던 직장의 부하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직접 사내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 몇 번의 주의를 주었지만 당시의 허선무 집사는 복음전도의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겁날 것이 없었다. 당시를 회고하는 허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영업부 자체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후 사장이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 일에 피해가지 않게 할 터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계속 추진했습니다. 기도원으로 끌고 다니기도 했지요. 그리고 거래처 술대접 등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끌어서라도 교회에 데려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허선무 집사는 목회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생겼다. 아내 역시 그 비전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수세미 공장이 있던 17평 지하 공간에 야외용 돗자리 하나 깔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1992년 9월이었다. 개척 멤버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가정이었다. 그 지하 공간은 허선무 목사의 가정집이기도 했다.

열정만 있었지 기독교 문화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개척인지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책 한 권 살 돈도 없었던 그때 허 목사의 목회 교과서

는 신학교에서 교회로 오는 길목에 있었던 기독교 서점의 주석이었다. 6개월 동안 매일 서점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새벽과 주일에 설교했다.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식의 설교였다. 개척하고 1년간은 새벽설교 하나 준비하기 위해 강단 아래에서 밤을 지새는 것을 밥 먹듯이 했을 정도였다.

설립예배를 드리고 두 달 후 첫 성도가 등록을 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지만, 이사를 하면서 개척 교회를 섬기려는 열망을 가지고 직접 찾아온 방한나 권사(당시 청년)였다.

"처음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목사님도 처음 찾아온 성도를 어찌 대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 벽에는 아무런 인테리어도 없이 공장으로 이용할 때 끼어 있던 기름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럼에도 내가 봉사해야 할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무작정 한 개척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5년 만에 5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같은 노회의 선배 목사들로부터 목회 잘한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고, 허 목사 자신도 목회가 이 정도면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갈 무렵, 오히려 목회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은사와 열정은 무용지물

한번은 근처의 큰 교회에서 담임목사 몰래 신유기도를 해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쫓겨났다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찾아왔다.

"당시 저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잘못했어도 잘 훈련시켜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도를 내칠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되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기존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람은 허 목사가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부추겼다. 샘을 부려서 그렇다고 말하니 성도들 역시 동요하는 것이었다. 결국 기존 성도들 가운데 그에 대해 지지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각 가정을 심방하며 교회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했지만 이 사건은 심방과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그 사람과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다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A성도의 가정이 있었는데, A성도가 B성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없으니 그를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이다. 그로 인해 허 목사는 B성도가 치리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지만, A가정이 나가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약자 편에 서지 못하고 강자 편에 선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에 A성도를 만나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니 벽을 허물고 잘해보자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A성도의 가족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지요."

재정의 압박과 가정문제

50명이 모이던 교회가 일련의 일들로 인해 결국 17명 정도만 남게 되었다. 줄어버린 성도 숫자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왔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고사하고 예배당 임대료 월 40만 원조차 목사 가정만큼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던 남은 가정들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던 목회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50명 남짓 모였던 성도들은 서로를 보듬지 못하고 나누어졌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었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 교회가 마치 폐허처럼 변해 버렸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허선무 목사의 마음 또한 갈기갈기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다. 게다가 40평짜리 지하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 성도를 통해 1천만 원을 빌려 보증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난 후 변색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당시를 회고하며 허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의욕이 상실되고 강대상에 올라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라도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성도는 '천사들이나 데리고 잘해 처먹어라' 고 말하고는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 목사를 힘들게 한 것은 교회 성도들과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지하 17평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어 생활을 해야 했던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가출을 해버렸고, 점점 돌아오기 힘든 길을 걸어갔다. 이런저런 일들로 경찰서에 불려 가기를 수차례, 아들은 아예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조직 폭력의 세계로 빠져버린 것이다.

열정으로 달려들었던 목회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50명 남짓 모였던 성도들은 서로를 보듬지 못하고 나누어졌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었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 교회가 마치 폐허처럼 변해 버렸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허선무 목사의 마음 또한 갈기갈기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나는 행복한 택시운전사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아픔을 경험한 허선무 목사는 어떻게 그 난관을 헤치고 나갔을까? 허 목사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마침 6년 전 그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주택 제공과 월급 300만 원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그를 다시 불렀다. 하지만 허 목사는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내의 목회에 대한 열심과 교인들의 애원 때문이었다.

아내는 아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면서 목회를 그만두는 것에 반대를 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허 목사는 남은 성도들에게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도록 권면했다. 당시를 회상하는 방한나 권사의 말을 들어보자.

"저희는 '동심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고 목사님께 반문했습니다. 남아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기는 이를 데 없고, 당시 우리 마음도 참 힘들었습니다만,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미안해져서 남아 있는 성도들이 더욱 연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허 목사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고민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전도사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 회사를 찾아가 성도들 모르게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밤새 택시 운전을 하고 새벽에 돌아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틈틈이 가출한 아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차라리 운전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몇몇 남아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면 오히려 자유롭고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빚도 갚아 나가고, 생활비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택시 운전을 2년 동안 했지요."

그러나 택시 운전은 잠시의 돌파구는 되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었다. 직장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자신을 믿고 교회를 지켜주는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했던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CAL세미나에서 뇌 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2000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허선무 목사는 목회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집중했다. 다양한 목회 관련 서적을 보고 공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를 추천받아 신청했다. 그리고 50기 CAL세미나에서 제자훈련 목회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김창애 사모는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온 허 목사를 이렇게 회고한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알아온 남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본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치 자신의 뇌를 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 17명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허 목사가 뭔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허 목사가 단기간에 그렇게 목회에 대한 자세가 변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CAL세미나를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목회가 평가되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밤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신발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전도했지만, 모든 것이 향방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다른 신앙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성경적이고 뚜렷한 비전 제시를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목회자인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결론이었다. 허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분명한 목회철학도 없었고, 성경적인 교회론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소신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뛰어갈 방향도 모르고 뛰기만 했던 것이죠. 야생마처럼 말입니다. 성도들을 탓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된 평신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뼉을 치며 이거구나 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빨아들이다시피 흡수한 허 목사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2월 초, 세미나에서 돌아온 다음 해 3월부터 1기를 모집하겠다는 선포를 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평신도를 깨운다』를 꼼꼼하게 읽고, 교재를 분석하면서 제자훈련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훈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기 제자훈련 수료생이자 현재 동심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강춘미 전도사의 말을 들어보자.

"목사님은 CAL세미나를 다녀오시고 나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통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칠판까지 이용해 설명하시는데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시작도 하기 전에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빨리 시작하지 않는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CAL세미나에서 서둘러 시작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여 충분한 토양작업을 하고 시작하라는 당부를 들었지만,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던 허선무 목사는 사모를 포함한 여성도 5명과 남자 집사 1명을 모집했다. 사실 모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2002년 당시 교회에 남아 있던 교인은 17명이 전부였는데, 가능한 사람은 다 1기 제자훈련에 임한 것이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허 목사는 성도들을 재발견하게 됐다. 이미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기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야 듣게 된 것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각자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허물없이 나누다 보니 서로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풀게 되면서 눈물바다를 이루어 훈련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허 목사 자신도 지금까지 성령운동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외쳐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함께 울었다. 그 이후 6명의 훈련생들은 눈에 띄게 변화되었고, 전도지를 들고 밤낮없이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다.

전도로 맺히는 열매

제자훈련의 열매는 먼저 전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허 목사는 1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바로 대각성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새생명축제를 준비해 나갔다. 그는 자신이 CAL세미나에서 참관했던 소그룹 현장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사랑의교회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훈련생들과 함께 사랑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빨아들이다시피 흡수한 허 목사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2월 초, 세미나에서 돌아온 다음해 3월부터 1기를 모집하겠다는 선포를 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평신도를 깨운다』를 꼼꼼하게 읽고, 교재를 분석하면서 제자훈련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훈련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의교회에서 새생명축제를 참관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허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6명의 훈련생들이 뛰어다니며 초청해서 40평 지하 예배당으로 모시고 온 태신자들이 70명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하 교회로 사람을 초청하면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3층이라도 되어야지, 지하는 정말 어렵거든요. 실로 오랜만에 동심교회 예배당이 가득 찼을 때의 감격이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다

제자훈련의 최대 수혜자는 허선무 목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한다. 최수아 집사 가정의 예를 보자. 최 집사는 2001년 1월 동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2002년 남편과 함께 1기 제자훈련을 받았다. 최 집사 가정으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1년 6개월 전만 해도 큰 갈등으로 인해 별거 중이었기 때문이다. 별거의 이유는 남편 최경남 집사의 15년간 이어진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이었다. 두 아이들은 아빠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깨어진 집안 살림과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아이들은 "엄마 조금만 참아 우리가 커서 지켜줄게"라고 엄마를 위로할 지경이었다. 남편은 심할 때는 칼을 들고 위협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다. 아이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본 최수아 집사는 남편과 별거를 선택했고, 남편이 나간 사이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해버렸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남편은 아무런 연고도 없던 동심교회를 방문했다가 등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최수아 집사는 4년 전 우연히 기도원에서 동심교회 김창애 사모를 만나 중보기도로 연결된 사이였다. 우여곡절 끝에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또 함께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자훈련이 이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아이들은 아빠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부부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로 변화되었다. 남편 최 집사는 그 후 10년 동안 남들이 다 마다하는 차량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역을 섬기고 있다.

초창기부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방한나 권사의 가정도 처지가 비슷했다. 방 권사의 말이다.

"저희 집 전화기는 한 달에 하나씩 부서져 나갔습니다. 제 성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남편의 성격은 정말 불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과 헤어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남편보다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기도해야 할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남편을 화나게 하는 저의 언어습관을 훈련을 통해

고치게 되었습니다. 모난 돌들이 바다의 파도에 부딪혀서 둥글둥글해지는 것같이 성령께서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를 동심교회에서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허 목사 자신이 사역으로 인해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아무리 강한 훈련 기간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중에 허 목사의 가정에도 좋은 소식이 생겼다.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던 큰아들이 극적으로 가정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에 입학했고, 지금은 총신대신대원에 재학 하면서, 동심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2004년 2기 제자훈련을 모집했을 때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직장을 다니던 성도들 몇 명이 직장에 사표를 내고 훈련에 신청을 한 것이다. 허선무 목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교인들에게 반영이 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하나는 1기 제자훈련생들의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제자훈련 받으려면 직장생활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미 교회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1기 제자훈련생들이 살아나니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길이 강할 때는 젖은 장작이라도 그 열기에 타오르듯이 말입니다."

훈련생들의 헌신은 영혼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재권이 바로 정립되니, 성도들이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헌신하여 교회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마침 교회당 바로 옆 4층 건물이 매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건물 구입을 추진했다. 당시 그 건물은 시가 6억 원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500만 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 층을 전세로 사용하는 것도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했다. 허선무 목사의 말이다.

"사흘 내에 3천만 원을 구하면 전세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신학교를 다니던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은 집사로부터 계속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200만 원 입금', '500만 원 입금', '1,500만 원 입금' 결국 사흘 만에 3천만 원이 모아졌고, 계약이 성사되었죠."

계속해서 남아 있던 중도금 문제 그리고 대출 문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동심교회가 입당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들은 2년 전의 동심교회와 비교해 볼 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훈련된 소그룹 리더의 숫자가 교회의 사이즈이다

동심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150명의 성도들은 99% 소그룹에 출석한다. 소그룹 중심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에서도 보기 힘든 참석률이다. 동심교회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허 목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100% 목장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면 교인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목장 중심으로 하고, 양육도 목자와 목장이 직접 담당합니다. 신앙의 ABC를 목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목장으로 연결되어 양육이 됩니다. 전도부터 제자훈련 추천까지 모두 목자의 사역인 것이죠."

훈련을 통해 헌신된 소그룹 리더가 만들어가는 교회 문화로 인해 소그룹 정착률이 그렇게 높아진 것이다. 현재 성도 90% 이상이 다른 교회 경험 없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인 것을 감안하면 동심교회 목자들의 헌신은 웬만한 교회 교역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허 목사의 기대가 고스란히 결과로 반영되었다.

"제자훈련을 저의 목회철학으로 삼고 난 후부터 저는 영혼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와도 소그룹 리더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

용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소그룹 리더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의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이 최대라고 볼 때, 20명의 리더가 있는 교회는 200명 이상 교인을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허 목사는 소그룹 내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회중은 의미가 없으며, 결국 소그룹 리더 훈련이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이어서 곧바로 사역훈련에 돌입한다. 제자훈련 후에 사역훈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현장을 찾아보면 제자훈련은 시작했지만 아직 사역훈련을 시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만으로 리더 사역에 투입시키는 경우 또한 많다.

동심교회의 경우 전교인 17명 중 6명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기에 다음 해에 바로 제자훈련 2기를 모집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2년 주기로 제자반을 모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제자훈련에서는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사역훈련에서는 교회와 사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소그룹 인도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역훈련에서는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론과 목회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와 같은 비전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

허 목사는 사역반에서 1기 수료생들이 배출되기 전에는 섣불리 소그룹 체제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옥한흠 목사가 강조한 '일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에 무엇을 했을까? 허 목사는 소그룹 체제를 준비하면서 양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새가족모임'을 만들고, '성경종합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제자훈련생을 위해 미리 양육 과정을 강화하게 되었다. '신구약 파노라마',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과정도 신설했는데, 허 목사는 1기 사역훈련생들이 훈련 중에 이 과정도 이수하도록 했다. 특이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1년 과정이라는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 6주 정도에 마치는 '신구약 파노라마' 과정도 1년 과정으로 개설하여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심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양육 과정이 강한 편이다.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은사 중심적이며 기도와 성령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말씀 연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사랑의교회와 같이 귀납적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목자를 배출하려는 허 목사의 목회 방향에 기인한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양육 과정 모두 1년 과정의 긴 코스이기 때문에 초신자가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5, 6주 과정의 짧은 양육프로그램을 두어서 근육통을 덜 유발하는 계단을 놓을 필요도 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동심교회 제자훈련이 아무 문제없이 환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제자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3기 남자 훈련생들이 사역훈련을 마치고 나서 일어났다. 더 이상 훈련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2007년 당시 100명 가까운 출석교인이 있었지만, 거의 모두가 양육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없이 양육 과정에 치중하는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재미를 본 허 목사는 도저히 더 이상 제자훈련 사역을 쉴 수가 없었다. 문제는 그 조바심에서 발생했다.

"4기 여자 훈련생을 모집했는데, 그 나이 차이만큼이나 양육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간 훈련하다 보니 1, 2기 때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겨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한 휴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훈련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수료를 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허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를 하기 전에 이미 훈련되지 않고 열정만 많은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목도했었기 때문에, 훈련생 수료기준을 낮출 수가 없었다.

"수료증 따려고 제자훈련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실수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분씩 개별 면담을 해서 훈련반을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사실 훈련생의 잘못은 없는 것이니까요. 어떻게든 그

허 목사는 사역반에서 1기 수료생들이 배출되기 전에는 섣불리 소그룹 체제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옥한흠 목사가 강조한 '일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에 무엇을 했을까? 허 목사는 소그룹 체제를 준비하면서 양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새가족모임'을 만들고, '성경종합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들이 훈련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야죠."

문제는 훈련생의 양육 수준은 떨어지는데, 수료 기준은 너무 높아서 그 간격을 좁힐 방안을 찾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우 자칫하면 훈련생이 자존심에 상처만 받거나 중도 탈락했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 그래서 훈련생 간의 수준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 허 목사의 생각처럼 훈련생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동심교회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동심교회 제자훈련은 일반적인 성경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훈련을 준비하는 훈련생들에게 대충해서는 제자훈련을 수료할 수 없다는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동심교회를 주목하는 이유

대부분의 개척 교회처럼 동심교회도 결코 충분치 못한 환경에서 시작한 교회이다. 20년 전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17평 지하 수세미 공장에서 시작한 개척 교회였다. 개척 초기 10년 동안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훈련되지 않아, 야생마처럼 힘은 넘쳤지만 기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려고 했고, 그 결과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교회였다.

그러나 2011년 오늘의 동심교회는 매주 150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며,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동심교회의 진면목은 건물이나 사람 숫자에 있지 않다. 먼저 성경적인 목회철학으로 준비된 목회자가 있고, 동일한 목회철학으로 목회자와 함께 한 방향으로 뛰는 훈련된 평신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평신도들의 잠재력은 참으로 놀라웠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무장한 동심교회는 모래알처럼 섞이지 않은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이라 확신한다.

〈김영현 목사〉